

보도시점 : 2026. 9. 17.(목) 06:00 이후(9. 17.(목) 석간) / 배포 : 2026. 9. 16.(수)

5극3특 국가균형발전 뒷받침할 초광역교통 전략 연내 마련

- 대광위, 5극3특 시대 교통망 구축 위한 「초광역교통 정책포럼」 출범
- 연내 초광역 경제·생활권을 아우르는 초광역교통 전략(안)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는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한 초광역교통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초광역교통 정책포럼」을 구성한다.
 - 이번 정책포럼은 기존의 대도시권 중심 광역교통체계를 넘어, 생활·경제·산업권의 광역화에 대응하여 지역 간 이동을 연결하는 초광역교통체계 구축 방향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다.
 - 정책포럼에는 교통·철도·도로·도시계획·지역개발·균형발전 등 관련 분야의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등 20명 내외가 참여한다.
- 앞으로 정책포럼을 통해 초광역권별 교통수요 및 통행특성 분석, 초광역교통망 구축 방향, 초광역교통 재원 및 추진체계,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 특히,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초광역교통정책을 연계하여 권역별 특성과 지역 간 기능적 연계를 반영한 교통망 구축 방향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 정책포럼은 12월 중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한 연내 전략 최종안 발표를 목표로 진행한다. 9월 29일 키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월 1회 정책 워크숍을 개최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집중 자문회의를 수시 개최할 계획이다.

□ 대광위는 정책포럼 개최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지방시대위원회 및 국무조정실 등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범정부 차원의 초광역교통 정책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 특히, 지방시대위원회의 ‘권역별 대중교통망 전문위’에서 도출된 지역 현장 과제와 각 지자체가 수립 중인 「5극3특 권역별 발전전략」*과도 밀접하게 연계하여, 지역의 실질적 교통 수요에 부응하는 구체적인 정책 성과가 도출되도록 할 계획이다.

*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전략 마련을 위해 권역별 거점 중심으로 경제권, 생활권, 행·재정 기반 구축 등 부문별 핵심과제를 포함하는 전략(지방시대위원회 및 지자체, ~'26.12월)

□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5극3특 국가 공간구조의 대전환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초광역권의 연결성을 높이는 초광역교통망은 지역의 경제·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지역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초광역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교통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기획총괄과 (초광역교통팀)	책임자	팀 장	육인수 (044-201-5118)
		담당자	사무관	최혜리 (044-201-5056)
			주무관	임하나 (044-201-5019)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
MOVE : TOMORROW